

사할린주
사회정치신문

Общественно-
политическая газет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새고려신문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2025년 1월 17일(금)
--(윤력 12월 18일)--
Пятница
17 января 2025 г.
№ 2 (12119)
1949년 6월 1일 창간

Цена свободная



▲ 1월 19일 러시아 정교회에서 주현절을 기념한다. 이날 유즈노사할린스크 시공원 웨르흐네에 호수에 구멍을 뚫고 성수식을 갖는다. (이예식 기자 사진출에서)

단신

주지사, 사할린 소방구조대에 새로운 특수장비 전달

사할린주 각 지역의 소방구조대에 새로운 소방차를 구입하고 열쇠를 전달했다. 이 새로운 소방차들을 각 지방 소방본부에 전달한 가운데 6대의 우랄 소방차는 아니와, 포로나이스크, 우글레고르스크, 스미르니흐, 티몹스코에 소방구조대와 퉁구스 소방구조대 지부에 보냈다. 두 대의 재난구조 차량은 아니와, 돌린스크지역 소방구조대에 지급했으며, 직원 교대버스는 아니와 소방구조대에 전달했다.

세웨로쿠릴스크의 29가구, 새 아파트 열쇠 받아

세웨로쿠릴스크에 노후 주택에서 새 주거 단지로 이사한 29가구를 대상으로 아파트 열쇠 전달식이 진행되었다. 이들은 주에서 추진하는 노후주택 이주프로그램 실시 일환으로 무료로 새 아파트를 받았다고 전해졌다. 준공된 3층 아파트는 1칸짜리 아파트 20세대와 2칸짜리 아파트 9세대로 구성돼 있다. 주거 단지 내에는 주차장, 어린이 놀이터, 스포터 등이 갖추어져 있다.

사할린 의료기관들, 최첨단 의료장비 구입비 2배 증가

지난해 사할린 지역 의료기관에 최첨단 의료장비 구입을 위한 자금이 2배로 늘어났다.

개혁 시행으로 외래 진료소의 환자 수용 규모가 30% 증가했고, 세부 과목 전문의 대기 순서도 짧아졌으며, 지역 주민들을 위해 병원에서 최첨단 의료장비를 편하게 이용하는 것도 개선되었다. 또한 처방에 따라 특별로 의약품 받는 주민들의 수도 증가했다.

〈인구통계학〉국가기획의 수행으로 중요한 지역 프로그램이 도입되었다.

그중 하나로 의료지원 시스템에 민간 의료기관과의 통합은 환자가 주치의나 일반 진료센터를 통해 진료예약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한 것이다. 사할린 주민 7천여 명이 이러한 혁신체계를 활용했다. 외래진료소들은 매일 세부 과목 전문의와 상담을 위해 150명의 환자를 접수하여 의료혜택의 과정을 간소화하고 있다.

〈건강 안내자〉 기획은 의약품 특별 보급 대상자 수를 지난해에 비해 30% 증가시켰다. 또한 의료기관에 의료인력의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461명의 전문의를 포함해 1,106명의 의료진이 유지됐다. 사할린 지역에 태평양 국립 의과대학 지부가 개설되었고, 중앙학 진단센터 내에 핵의학센터가 기능을 하고 있으며, 중앙 진단을 위한 현대적

인 장비도 갖추어졌다.

포로나이스크의 중앙병원은 질병에 대한 진단을 크게 향상시킬 새로운 다기능 초음파 장비도 갖추었고, 네웬스크와 오하 지역 외래환자 진료소에서는 고령층에게 널리 이용하는 물리치료 장비가 도입되었다. 또한 달네에 마을에는 하루에 120명을 진료할 수 있는 새로운 외래진료소가 건립되었다. 내년에는 우글레고르스크, 흠스크, 유즈노사할린스크에 4개의 외래진료소를 더 건립할 계획이다.

의료기관의 보수공사와 현대화 작업이 지속되는 가운데 유즈노사할린스크 안쿠지노와 시 병원에는 치료 및 심장학 과목 진료도 개선되었고, 다른 의료기관들에서는 핵심적인 보수공사가 진행되었다.

농촌에서는 원격 검진과 상담을 진행하는 '디지털 의료센터' 덕분에 고품질의 의료서비스가 쉽고 편하게 이용되고 있다.

올해는 새로운 종합의료센터를 이용해 1,500 건 이상의 검사들을 수행했다. 또한 이를 이용한 환자들의 피드백은 지역 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있다.

알레리 리마렌코 주지사는 이후로도 의료서비스의 질과 편의성을 향상시키는 작업은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주지사, 새로운 동계스포츠 종목 개발 발표

알레리 리마렌코 주지사가 러시아 스포츠부 장관이자 국가 올림픽위원회 회장인 미하일 제짜료브와의 회동에서 사할린을 위한 새로운 동계스포츠 종목 개발을 발표했다.

사할린 지역에 쇼트트랙 스피드 스케이팅 종목과 프리스타일-모굴스키 및 스키 곡예 종목 훈련을 위한 코치를 유지할 계획이다.

이러한 종목들은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개최된 제4회 러.중 청소년 동계스포츠 경기 프로그램에 포함돼 있었다. 이에 앞서 주지사는 국제 스포츠 행사에 귀빈으로 참석한 국립 동계스포츠 종목 연맹의 대표들과 회담을 가졌다.

알레리 리마렌코 주지사는 "러시아 스포츠부 장관과 회동에서 사할린 지역 개발 부문에 대해 자세한 얘기를 나누는 가운데 동계스포츠 종목들 중 아직 우리에게 없는 쇼트-트랙과 프리스타일 종목에 대한 전망을 논의했다. 사할린에서도 이러한 종목들을 훈련하도록 하는 결정이 채택됐다. 나는 이 종목들의 코치들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우리는 러.중 청소년 동계스포츠 경기에서 이 종목의 경기를 지켜보았다."

이는 우리 주민들에게 크게 호평을 받은 정말 환상적인 쇼였다. 우리는 대중적인 스포츠 종목만 아니라 사할린과 쿠릴열도 주민들에게도 놀라운 스포츠

장면을 관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동계스포츠 종목을 사할린에 유치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러시아 스포츠 장관과 주지사는 유즈노사할린스크의 '트리움프(승리)' 바이애슬론 스키 단지(파동) 수상스포츠센터, 종합격투 종목센터 등, 일련의 주요 스포츠 종목 시설들을 방문하고, 여름철 유즈노사할린스크의 새로운 스포츠 시설인 육상 경기장 개장 계획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사할린주 스포츠부장관인 아르쎬 포드쉬발로브는

"현재 사할린 지역에서는 91개 스포츠 종목이 개발되고 있고, 80개의 스포츠연맹과 156명의 사할린의 선수들이 러시아 국가대표선수로 활약하고 있으며, 2024년 총결에 따르면 39명의 스포츠 사범과 486명의 사범 후보를 보유하고 있다."

사할린주는 매해 30개의 전 러시아 스포츠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이러한 지위를 성장시키기 위한 탄탄한 토대가 갖추어져 있으며, 스포츠 강습을 위한 좋은 시설들이 있다. 또한 '트리움프' 스키-바이애슬론 단지가 있는데 이 시설의 관리 속에 '위스타'스키 점프단지가 자리잡고 있고, 러시아 남녀 국가대표선수들이 여기서 훈련을 하고 있다. 또한 최근에 국제 역도 경기가 진행된 '위스토크'훈련-강습센터도 있다.

(3면에 계속)

새고려신문

2025년 상반기 신문 구독 계속!

존경하는 독자 여러분! 2025년 상반기 새고려신문 구독신청을 계속 할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사할린 한민족지를 계속 애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1개월 구독료는 115,49 루블리입니다. 신문 인덱스는 ПР575입니다.

신문은 주내 모든 우체국에서 구독할 수 있습니다.

(본사 편집부)

2024년을 돌이켜보며

새고려신문에 게재된 사할린 한인 사회계의 크고 작은 사업 · 행사 · 사건

(전호의 계속)

2월 27일 - 러시아 민족 고유어(모국어)의 날을 맞아 사할린주향토박물관에서 고유어의 날 관련 행사 개최. 우일타, 나나이족 언어가 소개되고 새고려신문사 배 워토리아 대표가 관객들에게 한국어·조선말·한글에 대해 간단히 설명, 창간 75주년이 되는 새고려신문 역사와 현황을 이야기하였다. (본지 3월 1일 호)

3월 1일 - 2023년 10월 6일부터 시작된 '사할린 한인 역사 정의회복을 위한 토론마당' 기획 일환으로 이날 마지막 모임을 가짐. '토론마당'은 유즈노사할린스크시 한국문화센터 대강당에서 전문가의 강의,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한 토론과 질문 방식으로 진행. 강연자들은 사할린의 학자, 사할린 및 일본 대학의 교수, 사할린주 향토박물관 전문가였고, 이 기획에 사할린 주주마, 사할린주 문화고문서부, 사할린주 향토박물관이 협력하고, 주최는 사할린주 한인협회가 했다. (본지 3월 8일 호)

3월 4일 - 이날부터 '사할린동포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024년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사업 신청 접수 시작. 예비 대상 인원은 총 270명. 접수는 2024년 6월 30일 마무리. (본지 3월 8일 호)

3월 7일 - 사할린 주립 향토박물관

관 학술편집부 부장인 진 율리아 이바노브나 박사가 한국 연세대학교 루스채플에서 열린 '용재학술상' 시상식에서 '용재신진학술상'을 수상. 용재신진학술상을 수상한 진 율리아 박사의 저서 "사할린의 한인 디아스포라: 본국 귀환 문제 그리고 소비에트와 러시아 사회로의 통합"(김종현 역, 선인, 2020)은 사할린 한인 디아스포라의 형성과정을 '귀환'을 둘러싼 역사, 정체성을 둘러싼 갈등, 사할린 한인 사회가 당면한 현안 등에 초점을 맞춰 밝혀낸 역사서이다. (본지 3월 8일 호)

3월 9일-3·8여성의 날을 맞아 유즈노사할린스크시 한인문화센터에서 사할린주한인협회(회장 박순옥)의 주최로 세계여성의 날 기념행사가 펼쳐졌다. 행사에는 1세 어르신들, 사할린주한인협회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여성들, 예술단체 단원 등을 초대. 같은 날 유즈노사할린스크시한인회(회장 림종환) 건물에서는 오전부터 노인정에서 모임이 이뤄진 가운데 시한인회 측에서 어르신들을 위해 공연과 명절상 준비. (본지 3월 15일 호)

3월 15일-17일간 - 제8대 러시아 연방 대통령 선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러시아 대선에서 압도적인 득표율(87.28%, 7,630만 명)로 재선. (본지 3월 22일 호)

3월 17일 - 일시 모국방문 프

로그래프로 사할린 1세 동포 22명이 한국에 입국해 일주일내 영주귀국한 가족과의 만남 및 한국 문화체험 등 관광 일정 소화. (본지 3월 22일 호)

3월 22일 - 사할린한인문화센터에서 사할린국립대학교 어문·역사·동양학 대학(학장 임 엘비라)과 사할린주한인협회(회장 박순옥)의 주최로 5학년-11학년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국: 교육과 사회> 상식 경시대회 개최. (본지 3월 29일 호)

4월 2일 - 세종국제고등학교가 사할린한국교육원과 한국어 보급 및 한국 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 협약식에는 박희동 세종국제고 교장과 정승훈 사할린한국교육원장이 참석. (본지 4월 5일 호)

4월 10일 - 한국 국회의원(임기 4년)선거가 치러진 가운데 사전투표가 2024년 4월 5일부터 4월 6일까지 진행. 선출대상은 국회의원 300명(지역구 254명 비례대표 46명. (본지 4월 12일 호)

4월 13일 - 사할린한인문화센터에서 '세대 간 연결, 전통의 이어줌' 사회적 기획 일환으로 씨름 축제가 열렸다. 사할린주 한인협회(회장 박순옥)와 사할린주 씨름협회(회장 춘 알렉세이)가 주최하는 이 대회는 사할린 주정부의 지원으로 개최. (본지 4월 19일 호)

4월 6일-11일간 - 톰스크시에 서 '가즈프롬 트랜스가스 톰스크'유한회사가 주최하는 <새로운 이름> 제10회 아마추어 예술단과 아티스트들의 기업 축제가 열린 가운데 8명으로 구성된 사할린한인문화센터 소속 '하늘'타악기팀(지도 송천석)이 휘모리를 연주하여 2등을 차지. (본지 4월 19일 호)

4월 19일 - 러시아 미술아카데미의 명예회원이며 '러시아 명예 화가' 호칭 수여자인 주명수 화백이 생신 75주년을 맞이하여 사할린주 미술박물관 소속 '마야크'미술관에서 개인 미술전 열려. (본지 4월 26일 호)

4월 19일 - 유즈노사할린스크가가린 호텔 대회의실에서 새고려신문사가 주최하는 <사할린 만남: 삶, 창작, 마음에 대해> 기획의 일환으로 음유시인 김 웨니아민과의 만남이 열려. (본지 4월 26일 호)

4월 20일 - 유즈노사할린스크 한인문화센터에서 사할린주한인협회(회장 박순옥), "토르나도"스포츠 클럽(회장 리 파벨) 주최로 열린 태권도 축제 진행. 축제는 <세대 간 연결, 전통의 이어줌> 사회적 기획의 일환으로 사할린 주정부 지원으로 개최. (본지 4월 26일 호)

4월 19일 - 유즈노사할린스크시 한인문화센터 대강당에서 '무한한 지식의 원천을 찾아내며'교육기획의

일환, 유즈노사할린스크 한국영사 출장소의 후원, 사할린국립대학교 어문·역사·동양학 대학, 사할린주한인협회 주최로 학생 연구보고서 경연대회 개최. (본지 5월 3일 호)

4월 25일 - 사할린주 일반과학도서관 대강당에서 사할린 주립역사기록원이 출간한 "영화관장으로"전시 도록 출판기념회 열려. 200여 페이지의 이 도록에는 사할린주 국립조선사회극단 역사도 실림. (본지 5월 3일 호)

4월 26일 - 유즈노사할린스크시가가린 호텔 대회의실에서 새고려신문이 추진하는 "사할린 만남: 삶, 창작, 마음에 대해"기획 일환으로 미술작가 키오(허) 야나와 만남 개최. (본지 5월 3일 호)

4월 27일 - 2023년 사할린동포영주귀국 및 정착지원 대상 선정자단체 입학 시작. (본지 5월 3일 호)

4월 30일 - 재외동포청(청장 이기철)이 주최하는 '2024 세계한인차세대대회' 개최. 대회에는 미국을 비롯해 캐나다, 호주, 러시아, 벨라루스, 영국, 베트남 등 19개국에서 정치, 경제, 법률, 의료 각 분야에서 활발하고 활동하고 있는 70명의 한인차세대 리더 참가. (본지 5월 3일 호)

5월 1일-2일 - 이틀간 사할린주한인협회(회장 박순옥)는 모스크바 상설 국민 경제달성 박람회장에서 열린 '러시아'전시회의 일환으로 사할린 부스에서 한인 문화와 풍습을 소개. (본지 5월 3일 호)

(7면에 계속)

이 모 저 모

관광객들, '라구쉬카' 바위까지 새 계단으로 일년 내내 오를 수 있다

유즈노사할린스크의 인기 있는 관광명소인 웨스토츠키카 마을 부근의 '라구쉬카(개구리)바위'에 일년 내내 방문이 가능하게 되었다. 산 정상에 놓여있는 유명한 '라구쉬카' 바위까지 200m 정도의 긴 계단이 설치되었다고 사할린주 관광부가 전했다.

새로운 계단은 높이가 125m이고, 43개의 난간과 454개의 계단으로 이뤄져 있다. 편안한 등반을 위해 파노라마로 풍경이 펼쳐지는 4개 전망대도 설치되었다.

계단 구조는 높이 오르고, 오염물 적재를 방지하는 격자형 철재구조로 이뤄져 있어 비나 눈이 오는 어떤 날씨에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이 덕에 노인들을 비롯해 자녀를 동반한 가족단위의 방문객들이 쉽고 편하게 등반할 수 있게 되었고, 동시에 '라구쉬카' 구역 자연적인 경관과 생태계가 훼손되지 않게 유지된다.

'라구쉬카' 산 계단 설치는 사할린주 관광부의 보조금과 지역 예산의 기금으로 조성되는 <웨스토츠키카 기운의 자리> 휴양 구역 보수공사 프로그램의 일부이기도 하다.

이에 앞서 <웨스토츠키카 기운의 자리>는 전망대가 설치되었고, 안내판도 개선되었으며, 캠핑과 모닥불 구역도 설치되었다. 이러한 설비 개선은 사할린의 주민들과 관광객들 사이에 더욱 인기 높은 휴식공간이 되게 했다.

관광객들, '라구쉬카' 바위까지 새 계단으로 일년 내내 오를 수 있다

유즈노사할린스크의 인기 있는 관광명소인 웨스토츠키카 마을 부근의 '라구쉬카(개구리)바위'에 일년 내내 방문이 가능하게 되었다. 산 정상에 놓여있는 유명한 '라구쉬카' 바위까지 200m 정도의 긴 계단이 설치되었다고 사할린주 관광부가 전했다.

새로운 계단은 높이가 125m이고, 43개의 난간과 454개의 계단으로 이뤄져 있다. 편안한 등반을 위해 파노라마로 풍경이 펼쳐지는 4개 전망대도 설치되었다.

계단 구조는 높이 오르고, 오염물 적재를 방지하는 격자형 철재구조로 이뤄져 있어 비나 눈이 오는 어떤 날씨에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이 덕에 노인들을 비롯해 자녀를 동반한 가족단위의 방문객들이 쉽고 편하게 등반할 수 있게 되었고, 동시에 '라구쉬카' 구역 자연적인 경관과 생태계가 훼손되지 않게 유지된다.

обладающего высокими грязезащитными свойствами, что делает ее удобной для использования в любую погоду, включая дождь и снег. Благодаря этому подъем стал доступен даже для пожилых людей и семей с маленькими детьми, при этом природный ландшафт и экосистема в районе останца остались нетронутыми.

Строительство лестницы стало частью программы благоустройства рекреационной зоны «Место силы Восточка», финансируемой за счет субсидии областного минтуризма и средств местного бюджета.

Ранее в «Месте силы Восточка» уже были установлены беседки, обновлены информационные стенды, оборудованы кемпинговые и костровые зоны. Эти улучшения сделали зону отдыха еще более популярной среди жителей Сахалина и туристов.

사할린주, 2025년 최저 근로 임금 발표

사할린 지역 주민 근로고용청은 북부 극지와 동등한 지역들에서 근로에 대한 지역 계수와 추가 비용의 인상을 고려해 사할린의 다양한 지역들에서 최저 근로 임금이 얼마가 될지를 발표했다.

2025년에 러시아에서 최저 근로 임금은 2만2천440루블리 정도로 2024년 대비 16%가 인상되었다. 사할린주에서 최저 근로 임금이 러시아 평균 최저 근로 임금보다 높은 것은 북부 극지 및 동등한 지역들에서 근로에 대한 지역 계수와 추가 비용이 고려되는 데 있다.

사할린 지역 근로고용청이 전하는 바로는 최저 근로 임금은 알렉산드롭스크-사할린스크, 아이나, 돌린스크 코르사코브, 마카로브, 네웰스크, 포로나이스크, 스미르니흐, 토마리, 티모브스코예, 우글레고르스크, 홈스크, 유즈노사할린스크 지역들에서 4만7천 124루블리이고, 노글리키와 오하 지역에서는 5만8천344루블리이며, 쿠릴스크, 세웨로-쿠릴스크, 유즈노-쿠릴스크 지역들에서는 6만2천 832루블리이다.

최저 근로 임금에는 근로의 유해성과 위험성의 조건, 초과 근무, 야간근무 휴일 및 공휴일 근무에 대한 임금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 주목된다.

최저 근로 임금은 고용주가 채용한 직원이 자신의 근로 의무를 다하고, 근로시간을 엄수해 노동을 제공하는 조건에서 직원들에게 지급해야 하는 최저임금이다.

Минимальный размер оплаты труда на 2025 год озвучили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 региональном агентстве по труду и занятости населения сообщили, каким будет минимальный размер оплаты труда в разных районах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 учетом повышающего районного коэффициента и процентных надбавок за работу в районах Крайнего Севера и приравненных к ним местностях.

В 2025 году в России минимальный размер оплаты труда (МРОТ) составит 22440 рублей – таким образом по сравнению с 2024 годом он увеличился более чем на 16 процентов.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МРОТ будет выше, чем в среднем по России – с учетом повышающих районных коэффициентов и процентных надбавок за работу в районах Крайнего Севера и приравненных к ним местностях.

Как сообщили в региональном агентстве по труду и занятости населения, МРОТ составит:

- в Александровск-Сахалинском, Анивском, Долинском, Корсаковском, Макаровском, Невельском, Поронайском, Смирныховском, Томаринском, Тымовском, Углегорском, Холмском районах,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 47 124 рубля;
- в Ногликском, Охинском районах – 58 344 рубля;
- в Курильском, Северо-Курильском и Южно-Курильском районах – 62 832 рубля.

Отметим, в МРОТ не включаются выплаты за работу с вредными и опасными условиями труда, сверхурочную работу, а также в ночное время, в выходные и нерабочие праздничные дни.

Минимальный размер оплаты труда (МРОТ) — это нижняя граница заработной платы, которую работодатель обязан выплачивать своим сотрудникам при условии выполнения ими своих трудовых обязанностей и полной отработки рабочего времени.

<#우리 함께> 자원봉사자들, 사할린 재활센터 의료진들에게 차 세트 선사

전 세계에서 1월 11일에 기념하는 세계 '감사'의 날을 맞아 이날에 앞서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는 사할린주 재활센터에서 매일 근무하는 의료진들의 노고에 특별한 감사를 표했다. <#우리 함께> 사할린 지부의 자원봉사자들은 특수군사작전 참전자들이 중증외상 후 다시 설 수 있도록 돕고 있는 의료진의 노고에 감사하며, 차 세트와 제과를 선물로 전달했다.

(8면에 계속)

러.중 심포니 오케스트라 사할린에서 공연, 기립박수 받아

사할린에서 개최된 제4회 국제 러.중 청소년 동계스포츠게임 문화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1월 11일(토) 러.중 심포니 오케스트라와 합창단이〈두 세계의 교차로에서〉공연 프로그램을 펼쳤다. '심포니아' 공연장은 예약석으로 가득찬 가운데 러.중 합동 공연의 명곡을 감상하기 위해 주 주민들과 중국의 귀빈들이 자리를 채웠다.

러시아 측 지휘자 빅토리아 도브로웬스카야, 중국 측 지휘자 톤조 첸이 합동 오케스트라를 주도해 장설했다. 두 지휘자는 상트페테르부르크 립스키-코르사코프 국립음악원의 졸업생이고, 상트페테르부르크 쇼스타코위츠 필하모닉의 지휘자이자 교수인 블라디미르 아브라모비치 알트슐레르의 제자들이다. 러.중 오케스트라는 두 명의 지휘자와 예술감독이 있는 세계에서 유일한 예술단이란 점이 주목된다.

러.중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인 빅토리아 도브로웬스카야는 "러.중 합동 심포니 오케스트라는 항상 공연하고 있다고 말하고 싶다. 이 예술단은 기획으로 창설된 것이 아니다. 러.중 예술단은 끊임없이 공연하고 있으며, 늘 자체적 창작을 좋아한다."

우리는 2022년에 이러한 합동 예술단을 창설했다. 나의 동료인 톤조 첸과 함께 우리는 한 교수 밑에서 수학했고, 어느 순간 이러한 오케스트라 창설을 제안했다. 우리는 실제로 많은 음악인들을 섭외하고, 경연을 치르며, 가장 우수한 음악 인재들을 뽑았다."고 말했다.

현재 이 예술단은 심포니 오케스트라, 합

창단, 솔로 독주자와 성악가 단원 등 250명으로 구성돼 있다. 오케스트라의 주요 부분을 구성하는 단원은 러시아와 중국의 음악인들 외에도 한국, 베트남, 일본, 칠레, 이란, 프랑스 기타 국가들에서 온 음악인들이다. 예술단은 음악과 합동 공연을 통해 민간외교의 좋은 본보기가 되고 있다. 이번에 예술단은 사할린 지역에 35명의 오케스트라 단원과 8명의 성악가들을 인솔하여 왔다.

공연 현장은 생생하고 다채로운 목소리와 악기 연주로 가득찼다. 무대에서는 누구나 잘 아는 곡들인 '폴류쉬코-들판', '오, 산분꽃이 핀다', '카류샤', '칼린카', '레니그라드의 저녁' 곡들이 울려 퍼졌다. 솔리스트들은 재치 있게 '레니그라드의 저녁'을 '사할린의 저녁'으로 바꾸어 불러 청중들로부터 큰 환호를 받았다. 예술단은 러시아의 고전음악을 비롯해 중국의 국민음악으로 '용선', '나의 조국', '자스민'과 빼이징의 오페라 '위대한 당 왕조의 품위있는 부부' 교향곡 중 '피어나는 배꽃 찬가'를 연주했다.

무대 위에 음악인들의 화합과 생동감 넘치는 상호작용과 정통적 연주, 전통적인 중국의 의상과 다양한 음악 연주는 사할린 주민들에게 깊은 감동을 안겨주었다.

공연장에 '브라보' 함성과 갈채가 가라앉지 않은 가운데 청중들은 무대에서 예술단을 놓아주지 않았다. 마지막 앵콜 곡으로 위탈리 노위코브(러시아), 탕 샤오(중국), 요아킴 코피니에(프랑스) 등 오케스트라 3명의 바리톤 성악가들이 '칼린카'와 '폴류쉬코-들판' 곡을 불렀다.

사할린, 제4회 러-중 청소년 동계스포츠게임 폐막

1월 8일부터 14일까지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제4회 러-중 청소년 동계스포츠게임이 진행되었다. 러시아와 중국의 200여 명의 젊은 선수들이 스키 점프, 노르딕 복합, 크로스컨트리 스키, 피겨 스케이팅, 쇼트트랙, 컬링, 알파인 스키, 프리스타일 스키, 스노보드 등 9개 종목에서 기량을 뽐냈다.

이번 경기에서 러시아 대표팀은 82개 메달을, 중국 대표팀은 29개 메달을 획득했다. 사할린 선수 5명이 러시아 대표팀 일원으로 선발된 가운데 제4회 러-중 청소년 동계스포츠게임에서 메달 4개를 획득했다. 알파인 스키 선수인 빅토리아 이와누슈코가 금메달, 예고르 코로테예브가 은메달, 사할린동포인 공 제니스 스키 점프 선수가 동메달을 따냈다. 또한 러-중 혼성 팀 경기에서는 사할린의 공 제니스 선수와 박 폴리나 선수, 중국의 윤 리 선수와 자오 치루이 선수가 한 팀이 되어 3등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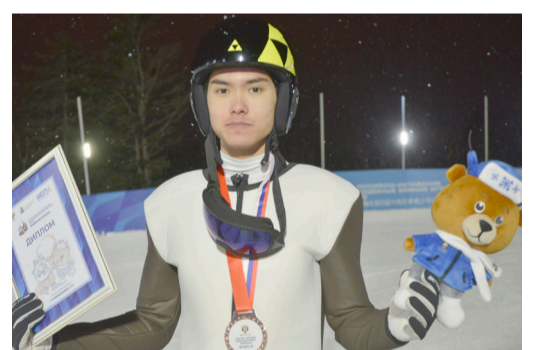
제4회 러-중 청소년 동계스포츠게임이 모두에게 밝은 에너지를 전하며 사할린 주민들의 적극 응원 속에 성공적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피겨 스케이팅, 쇼트트랙, 프리스타일 등 경기들은 화려한 볼거리를 제공했고, 관람의 자리에 수많은 사람들을 모았다.

경기는 '고르니 위즈두흐'관광.스포츠단지과 '위스토크'훈련강습센터, '크리스탈'빙상장, '위스타'스프링 보드 단지, '트리옴프'스키-바이애슬론 단지 - 5곳에서 진행되었는데 새고려신문사 기자들도 취재에 바빴다.

"이번에 네 번째로 청소년 동계스포츠 게임을 개최했는데 사할린은 지금까지 가장 높은 수준의 대회를 조직했고, 러시아 청소년 대표팀은 이곳에서 열린 모든 종목에 참가했습니다. 경쟁은 매우 치열했고, 최고의 선수들이 사할린에 왔습니다. 중국 측은 다양한 국제 대회에서 매우 훌륭한 참가자들을 데려왔습니다."라고 미하일 제짜료브 러시아스포츠부 장관이 강조했다.

1월 13일(월) '위스토크'훈련강습센터에서 열린 대회 폐막식에서 알레리 리마렌코 주지사는 "대회 우승자들을 비롯한 모든 선수들에게 축하의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사할린을 대회 장소로 선정해준 러시아 스포츠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에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심사위원단, 사법단, 선수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은 이번 대회를 멋진 스포츠 축제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물론 사랑과 우정의 분위기를 조성해준 유즈노사할린스크 주민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라고 말했다.

개막식과 폐막식이 화려하고, 화기에애한 분위기 속에 진행된 가운데 제4회 러-중 청소년 동계스포츠게임은 양국 간 친선 분위기로 오래 기억에 남을 것이다.



(취재: 글/배순신 기자, 사진/이예식 기자)

31개국 차세대 동포 441명 한국을 배운다

재외동포청 주최·재외동포협력센터 주관, 제7·8차 모국 초청 연수' 진행 한국 문화·역사 및 발전상 체험...
글로벌 리더십 양성 프로그램도 참여

재외동포청(청장 이상덕)은 전 세계 31개국에 거주하는 차세대동포 441명을 한국으로 초청하여 한국을 배우고 체험할 기회를 제공한다. 1월 13일 시작한 '제7차 차세대동포 모국 초청 연수'에는 31개국 253명, 14일부터 진행한 제8차 연수에는 31개국 188명의 청소년과 대학생이 참가했다. 일주일동안 진행되는 이번 연수 사업은 차세대 동포들이 모국의 문화와 역사를 체험하고, 한국의 발전상을 돌아봄으로써 모국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차세대동포 모국 초청연수사업은 재외동포청이 주최하고, 재외동포청 산하기관인 재외동포협력센터가 주관한다.

제7차 연수에 참가한 청소년들은 서울, 부여, 대전 일원에서 전통문화와 K-팝 등 과거와 현재를 체험하고, 일본에 한자를 전해주는 등 높은 문화 수준을 가진 백제의 해양 진출 등에 대해 배운다.

특히, 국립중앙과학관 등에서 우주 진출을 꿈꾸는 과학기술과 증강현실로 구현한 스포츠를 체험하는 시간도 갖는다.

제8차 연수에 참가한 대학(원)생들은 서울과 부산 및 인천의 역사, 문화 체험과 함께 기후변화에 대한 글로벌 대응 등 글로벌 리더를 육성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프로그램은 △ 경기도 시흥 소재 서울대학교에서 개회식 개최 △ 해양과 과학의 도시 부산 역사 및 문화 체험 △ 서울 역사·문화 및 발전된 경제 현장 방문 △ 한복 페스티벌 등 한국의 예절 문화 체험 △ 기후변화에 따른 지구시민액션 프로젝트 수행 등으로 구성됐다.

이상덕 재외동포청장은 15일 열린 제8차 연수 개회식에 참석해 "차세대동포 모국 초청 연수사업은 차세대동포를 위한 재외동포청의 다양한 사업 중 핵심적 사업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차세대동포는 거주국에서 모국 및 모국 문화에 대한 정체성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은데 동 연수를 통해 차세대동포 간, 차세대동포와 모국 친구 간 네트워크를 통해 한인 정체성을 함양하고 거주국 및 모국의 소중한 자산으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재외동포청 제공)

주지사, 새로운 동계스포츠 종목 개발 발표

(1면의 계속)

사할린의 대표 선수인 폴리나 파블로비치는 러시아 3관 신기록을 달성했다."고 보고했다.

러시아 연방 스포츠부 장관 미하일 제짜료브는 "사할린은 이미 극동 연방관구에서 선두에 서 있으며, 현재 주민의 67% 이상이 스포츠를 즐기고 있다. 또한 스포츠 제반시설 제공 지표도 67%에 달해 양호한 상태다. 이는 대단히 좋은 성과이며, 이는 주지사와 정부의 관심을 보여주는 지표이기도 하다."며 "연방 지원과 <스포츠는 나의 생활>기획 외에도 고르노자보르스크와 체호브 마을에 실내 체육관 건설, 일린스코예 마을에 종합체육관이 건설과 사할린주의 개발프로그램이 있

음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사할린주가 많은 스포츠 시설들에 자금을 투입한 것이 대단히 성공적이었다고 본다. 2025년 - 2027년간 우리는 <사업 - 스프린트(단거리 경주)> 연방기획의 일환으로 8개의 스포츠 경기장을 건설하고, 조립식 체육관을 하나 건설할 계획이다. 또한 <노동과 국방을 위한 준비> 종합 프로그램에 사할린 지역 주민들의 참여도를 강조하고 싶다.

이에 따른 21개의 센터가 개소했는데 이는 좋은 결과다. 여러분에게 스포츠의 발전과 체육에의 참여도 성공적이기를 기원한다."고 주지사에게 말했다.

(주정부 자료에서)

О диаспоре, и не только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завершились IV Российско-китайские молодежные зимние игры

IV Российско-китайские молодежные зимние игры стартовали 9 января. Более 200 молодых атлетов из России и Китая показывали свое мастерство в девяти дисциплинах: прыжки на лыжах с трамплина, лыжное двоеборье, лыжные гонки, фигурное катание на коньках, шорт-трек, керлинг, горнолыжный спорт, фристайл и сноуборд.



В составе сборной России выступили пять сахалинских спортсменов. По итогам соревнований островитяне сумели завоевать медали всех достоинств. Победительницей Игр стала Виктория Иванушко, которая опере-

дила своих соперниц в слаломе. Егор Коротеев отличился в слаломе-гиганте, где ему удалось занять второе место. Денис Гон замкнул ТОП-3 на трамплине HS 50-84. Кроме того, Денис Гон и Полина Пак завоевали еще и бронзовую медаль в соревнова-

ниях смешанных команд, которые не вошли в официальный зачет Игр.

Было отмечено, что организация Игр на Сахалине показала самый высокий уровень. Сахалинцы и гости острова

активно болели за спортсменов. Для российских и китайских спортсменов была организована красная культурная программа.

Самое большое количество болельщиков собрали соревнования по фигурному катанию и шорт-треку. Отлично поработа-

ли волонтеры. Спортсмены отметили дружелюбие, радушие и гостеприимство сахалинцев.

Церемония закрытия Игр состоялась 13 января в УТЦ «Восток».

Подготовила Виктория Бя
Фото Ли Е Сика

Победителем Турнира среди шахматистов корейской диаспоры стал Константин Сек

В начале января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состоялся традиционный шахматный новогодний турнир по блицу среди шахматистов корейской диаспоры с рекордным количеством участников.

Организаторами традиционного турнира являются Южно-Сахалинская местная общественная организация корейцев (ЮСМООК) и Шахматная федерация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о результатам соревнования определены победители и призеры в разных номинациях. Всем вручены медали, грамоты и призовые. Главным победителем стал Константин Сек, ему достался и Кубок соревнования. Одним из спонсоров соревнования стал Михаил Ким Сен Су, сообщили в ЮСМООК.

(Фото предоставлено ЮСМООК)

Ушел из жизни основатель сайта "Корё Сарам" Владислав Хан

13 января 2025 года в Ташкенте, в возрасте 72 лет, после продолжительной болезни ушёл из жизни основатель и редактор сайта «Корё сарам: Записки о корейцах» Владислав Хан (1952-2025). В 2009 году он создал и до сегодняшнего дня возглавлял интернет-портал, который на протяжении 15 лет был главным информационным ресурсом, рассказывающим о жизни корейцев, проживающих на постсоветском пространстве.



Уроженец колхоза им. Свердлова Ташкентской области, филолог по образованию, внук участника гражданской войны и борца за установление советской власти на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Хан Шен Гера, он пробовал в себя в разных областях.

Настоящая слава и всеобщее признание пришли к нему в возрасте 57 лет. «Это был момент, когда я искал себя, у меня бизнес ломался — и я не знал, что делать. Мы, советские и постсоветские корейцы, называем себя корё сарам, такое название получил и сайт», — вспоминал Владислав в одном из своих интервью. За короткое время ему удалось создать интернет-ресурс, ставший не только популярным средством массовой информации, на страницах которого публиковались новости, репортажи с общественных мероприятий, воспоминания о корё сарам, но и уникальным культурным явлением, оставившим яркий след в памяти и сердцах читателей.

Став редактором сайта «Корё сарам», он принимал активное участие в общественн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Был одним из авторов-составителей книги «Корё сарам» (Москва, 2014), участником многих международных научно-практических конференций по корееведению, входил в Консультативный совет по мирному и демократическому объединению Кореи при президенте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18-го созыва, являлся председателем Общества потомков борцов за независимость Кореи в Узбекистане. В 2019 году он возглавил газету Ассоциации корейских культурных центров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Корейцы Узбекистана» и занимал должность главного редактора издания до 2022 года.

Имя Владислава Хана стало символом глубокой порядочности, совести, безграничной любви и преданности своему народу, к его памяти и истории. Именно он, дав своему сайту такое название, превратил словосочетание «корё сарам» в широко популярный и узнаваемый бренд не только на территории бывшего Советского Союза, но и далеко за его пределами.

Выражаем искренние и глубокие соболезнования родным, близким Владислава Викторовича, а также всем тем, кто ощущает свою принадлежность к сообществу, истории и культуре корё сарам.

<https://t.me/saramkor>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е синмун" выражает глубокие искренние соболезнования родным и близким Владислава Викторовича с невозможной потерей. Он был человеком чести, порядочности, доброй души и чистого сердца, был влюблен в Сахалин и мечтал вновь побывать здесь...

«Сахалин Ханин» приняла участие в новогодней программе для детей с ОВЗ

11 января активисты местной общественной организации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Сахалин Ханин" (МООСК ЮС, председатель Чон Ен Гон)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в новогодней программе для особенных детей, которая прошла в областном Центре народного творчества.

Руководитель ЮСАНОПИИ «Виктория» И Мин Дя выразила огромную благодарность активу "Сахалин Ханин" за оказание финансовой помощи в приобретении новогодних подарков.

В этом проекте активно участвовала молодежная команда МООСК

ЮС «Сахалин Ханин», которая плодотворно сотрудничает со многими спонсорами проекта. Все были рады внести частичку радости для детей с ограниченными возможностями.

Мероприятие сопровождалось красочным представлением с Дедом Морозом и Снегурочкой, закончился праздник веселой дискотеккой, сообщили в «Сахалин Ханин».

(Фото предоставлено МООСК ЮС)



Ветераны сахалинских СМИ к Дню российской печати получили подарки от коллег

По уже сложившейся традиции члены Сахалинского отделения Союза журналистов России (СЖР) в первые январские дни навещают ветеранов островной журналистики, которые сейчас на заслуженном отдыхе. Такие встречи всегда проходят очень тепло: старших коллег поздравляют с профессиональным праздником, вспоминают годы совместной работы. В подарочных наборах — полезные напитки и сладости, а также персональная открытка с добрыми словами и пожеланиями.

«От всего журналистского братства искренне поздравляем с Новым годом и нашим общим праздником — Днём российской печати! Ваш многолетний труд в островной журналистике помог сохранить частицу истории Сахалина и Курилы, остался в памяти благодарных читателей, зрителей и радиослушателей» - сказано в открытке от имени Президиума регионального отделения СЖР.

Подарки в отдаленных районах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уже вручили Надежде Михайловне Скоробогатовой и Людмиле Григорьевне Субраковой, которые много лет отдали городской газете Углегорска; экс-редактору смирныхской районки «Новая жизнь» Виктору Кузьмичу Сукову; журналисту курильского «Красного маяка» Владимиру Николаевичу Белину; Виктору Александровичу Комаричеву, который много лет работал редактором

ноглинской районной газеты «Знамя труда» и его коллеге по редакции Александру Георгиевичу Кузнецову; журналистке Галине Васильевне Крицкой из города Поронайска.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младшие коллеги навестили экс-редактора областной газеты «Рыбак Сахалина» Владимира Филипповича Бубнова, тележурналистку Грету Акоповну Ларину, яркого публициста Германа Григорьевича Бычкова. Подарок вручили также фотокорреспонденту газеты «Сэ коре синмун» Ли Е Сик (Михаилу Львовичу).

Всего Сахалинское отделение СЖР подготовило такие приятные сюрпризы для 18 островных ветеранов. Все они в ответ искренне благодарят коллег — в особенности за внимание и минуты теплого дружеского общения, которые дороже и важнее всего.

Впервые такую акцию на Сахалине и Курильских островах организовали в январе 2023 года. Средства на приобретение подарков выделены из членских взносов.



О Корее и корейцах

Суд рассматривает законность ареста Юн Сок Ёля

Слушания по рассмотрению законности исполненного ордера на арест Юн Сок Ёля проходят 16 января в Центральном окружном суде Сеула в закрытом режиме. Судебное заседание назначено на следующий день после того, как управление по расследованию коррупции среди высокопоставленных должностных лиц задержало Юн Сок Ёля. Его обвиняют в организации мятежа и злоупотреблении властью в ходе объявления в стране чрезвычайного положения 3 декабря. Адвокаты Юн Сок Ёля утверждают, что антикоррупционный орган не имеет полномочий для рассмотрения подобных дел. В этой связи они подали апелляцию в суд. Если суд признает ордер на арест незаконным, Юн Сок Ёль должен быть немедленно освобожден.

«Чёрные ящики» самолёта Jeju Air отказали за 4 минуты до крушения

Оба бортовых самописца самолёта Boeing 737-800 компании Jeju Air, разбившегося в конце декабря в аэропорту Муан, перестали регистрировать данные за четыре минуты до столкновения самолёта с бетонной конструкцией курсового радиомаяка. Как сообщили в Национальном совете по безопасности на транспорте США, эксперты которого проводят анализ устройств, запись данных прекратилась 29 декабря в 8 часов 58 минут 50 секунд. Столкновение самолёта с бетонной конструкцией произошло в 9 часов 3 минуты. Безвозвратная утрата данных существенно затруднит выяснение причины катастрофы, так как записи именно последних минут перед катастрофой имеют решающее значение в данном процессе. В качестве предварительной причины катастрофы эксперты называют отказ гидравлической системы выпуска шасси, в результате чего самолёт приземлился на фюзеляж и не смог вовремя затормозить.

РК на третьем месте в мире по «силе паспорта»

В 2025 году РК вместе с Финляндией, Францией, Германией, Италией и Испанией заняла третье место среди 227 стран в международном индексе паспортов по количеству стран, которые можно посетить без визы или оформив визу на границе. Таких стран 192. Данный индекс регулярно составляет британская консалтинговая компания Henley & Partners совместно с Международной ассоциацией воздушного транспорта. На первом месте Сингапур, чьи граждане могут посетить без визы 195 стран. На втором месте Япония с безвизовым въездом в 193 страны. Австрия, Дания, Ирландия, Люксембург, Нидерланды, Швеция и Норвегия разделили четвёртое место - 191 страна. США, чей паспорт ранее долгое время занимал первое место, опустились на две ступени, разделив девятое место с Эстонией - 186 безвизовых стран. Россия и Турция разделили 46-е место (116 стран), Китай занял 60-е место (85 стран). Северная Корея - на 99-м месте (41 страна). На последнем, 106-м месте, Афганистан (26 стран).

Экспорт кимчи из РК достиг в 2024 году нового максимума

На мировом рынке стремительно растёт спрос на корейские традиционные квашеные овощи кимчи. По данным министерства продовольствия, сельского и лесного хозяйства, в 2024 году РК экспортировала 47 тыс. 100 тонн кимчи на сумму 163 млн 600 тыс. долларов. Оба показателя являются рекордными. В прошлом году кимчи экспортировались в 95 стран. Крупнейшим покупателем была Япония. Далее следуют США, Нидерланды, Канада и Австралия. При этом поставки кимчи в Канаду увеличились на 61,5%, а в Австралию на 37,2 % по сравнению с позапрошлым годом.

С 20 января по 5 февраля в РК «период экстренного реагирования»

Правительство РК объявило с 20 января по 5 февраля «период экстренного реагирования» на потребности населения в медицинской помощи. Он приурочен к празднованию Нового года по лунному календарю. 115 отделений экстренной помощи при крупных многопрофильных больницах и 197 частных клиник будут оказывать помощь пациентам с респираторными заболеваниями. Кроме того, детей будут принимать 103 педиатрические клиники и 114 специализированных отделений неотложной помощи при многопрофильных больницах.

В РК усилят проверку безопасности импортных товаров

Количество проверок безопасности импортных товаров, в том числе, приобретенных на зарубежных торговых платформах, будет увеличено в этом году более чем в два раза по сравнению с прошлым годом. Об этом сообщили 15 января в Корейском агентстве по технологиям и стандартам (KATS) при министерстве промышленности, торговли и энергетики. С целью предотвращения проникновения на внутренний рынок опасных товаров количество проверок будет увеличено с 450 до более чем тысячи. Особое внимание предстоит уделить товарам с высоким риском возгорания и выделения токсичных веществ. Товары, признанные опасными, будут отозваны с рынка. KATS будет напрямую уведомлять потребителей об отзывах товаров и контролировать повторное распространение отозванных товаров в сотрудничестве с местными органами власти

Президента Юн Сок Ёля доставили в камеру после 11-часового допроса

Задержанного в среду утром президента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после общения со следователями доставили в камеру предварительного заключения, где он проведет ночь. Допрос продлился почти 11 часов, следователи должны к утру 17 января запросить ордер на заключение под стражу или отпустить Юна.

После состоявшегося 15 января в первой половине дня штурма резиденции президента, который, к счастью, прошел спокойнее, чем ожидалось, и без пострадавших, Юн был доставлен на допрос в штаб-квартиру Управления расследования преступлений высокопоставленных должностных лиц, которая расположена в правительственном комплексе в пригороде Сеула Квачхон.

Первый день в статусе допрашиваемого у президента РК выдался напряженным. Допрос, на который Юн так упорно отказывался являться, что в итоге и стало причиной выдачи ордера на его арест, стартовал в 11 часов утра и продлился до 21 часов 40 минут вечера по местному времени. Этот процесс вели два следователя, помимо Юна также присутствовал его адвокат. Журналисты подсчитали, что общение со следователями длилось весьма долго - 10 часов 40 минут, правда Юну давали время и на отдых, и на приемы пищи. СМИ даже в деталях расписали, какие блюда корейской кухни получил президент на обед и ужин.

Юн, который считает ордер в отношении него незаконным, как и действия сотрудников Управления, отказался давать показания, а также не дал согласия

на видеофиксацию. Учитывая молчание президента, возник вопрос, что же тогда делала следователи, Юн и его адвокат в течение почти 11 часов. Судя по всему, были завершены все формальности, зачитаны вопросы, которых, если верить СМИ, у следователей было очень много - общий объем их составил 200 печатных листов. Ответов по существу хотя и не было, но это тоже потребовало времени, чтобы занести в протокол.

В четверг 16 января состоялся второе заседание Конституционного суда по импичменту Юна. Первое прошло 15 января и завершилось за четыре минуты из-за неявки Юн Сок Ёля, который тогда находился еще в своей резиденции и готовился к отражению штурма следователями и полицией.

В корейском обществе и политических кругах после давно назревавшего задержания Юна стал еще более силен и эмоционален раскол по политическим взглядам. Сторонники президента Юна, которые в среду утром пытались помешать следователям, переместились в Квачхон, где устраивают теперь пикеты перед Управлением, требуя освобождения Юн Сок Ёля. Представители правящей партии назвали задержание незаконным, "политическим шоу" и превышением полномочий со стороны следователей и полиции. Оппозиция поддержала задержание, назвав его первым шагом в сторону нормализации процесса управления страной.

Олег Кирьянов (Сеул, РК)

Большинство за ограничение президентских полномочий

Сеул, 12 января — ИА РУСКОР. Согласно опросу общественного мнения, более половины южнокорейцев считают, что для реформирования президентской системы страны необходимо внести поправки в Конституцию. Они ссылаются на недостатки нынешней политической структуры и необходимость установления более жестких сдержек и противовесов для ограничения чрезмерной президентской власти. Согласно опросу, проведенному компанией Hankook Research по заказу газеты The Korea Times, 56 процентов из 1000 респондентов высказались за внесение поправок в Конституцию с целью реформирования действующего однократного пятилетнего президентского срока. В то же время 39 процентов опрошенных выступили против этой идеи, а остальные 5 процентов не дали ответа. Опрос показывает, что большинство граждан не одобряют нынешнюю систему, которая наделяет президента чрезмерными полномочиями, и вместо этого поддерживают меры по ограничению исполнительной власти. Эти мнения были единодушны в различных группах, включая пол, регион и политическую идеологию. Например, 61 процент респондентов, назвавших себя политическими либералами, поддержали это изменение. Аналогичным образом, 57 процентов респондентов с центристскими

взглядами и 51 процент консерваторов также согласились с тем, что такая поправка необходима. Что касается причин для изменений, 45 процентов опрошенных указали на необходимость устранения недостатков системы с одним пятилетним сроком полномочий, в то время как 35 процентов подчеркнули важность распределения или ограничения президентских полномочий для обеспечения более эффективной системы сдержек и противовесов. Еще 17 процентов указали на необходимость усовершенствовать действующую избирательную систему, которая позволяет кандидату стать президентом, не набрав большинства голосов. Одним из президентских полномочий, которое, по мнению людей, должно быть ограничено, является право вето на законопроекты, принятые Национальным собранием. Согласно опросу, 64 процента респондентов считают, что должно быть ограничение на количество раз, когда президент может воспользоваться правом вето. Эта обеспокоенность связана с тем, что Юн Сок Ёль воспользовался правом вето на более чем 25 законопроектах, предложенных оппозицией, в том числе на трех законопроектах, связанных со специальными расследованиями обвинений в коррупции, касающихся его жены Ким Кён Хи.

Век живи век твори!

Сеул, 13 января — ИА РУСКОР. Актер-ветеран Ли Сон Чжэ вошел в историю, выиграв главный приз на церемонии KBS Drama Awards 2024 и став самым возрастным лауреатом этой премии. 90-летний актер получил главную награду за роль в фильме «Собака знает все» на церемонии награждения. «Я прожил достаточно долго, чтобы увидеть этот день», — сказал Ли в своей благодарственной речи в KBS Hall в Сеуле, которая вышла в эфир в субботу. Из-за авиакатастрофы на Чеджудо мероприятие, которое изначально должно было состояться 31 декабря, было отложено и вышло в эфир после предварительной записи. Он появился на сцене с помощью нескольких актеров и выразил благодарность за то, что с самого начала был частью истории корейского телевидения. «KBS была родиной корейского вещания в 1961 году. Мне посчастливилось быть там с момента ее основания. Несмотря на взлеты и падения, я всегда верил, что мое время придет», — сказал он. Ли, родившийся в 1934 году, — один из старейших действующих актеров в Южной Корее, который блистал как на сцене, так и на экране. Однако

в октябре 2024 года ему пришлось внезапно покинуть спектакль «В ожидании Годо» из-за проблем со здоровьем, и это было его первое публичное появление более чем за два месяца. В «Собака знает все» — трогательной комедии, премьера которой состоялась 25 сентября прошлого года, Ли сыграл роль актера-ветерана, названного в его честь. Сюжет разворачивается вокруг группы пожилых людей во главе с Ли, которые оказываются втянуты в череду загадочных событий на острове Кодже, недалеко от южного побережья Кореи. Когда Ли начинает понимать, на что лает его собака Софи, бывший полицейский пес, приключения группы принимают причудливый и неожиданный оборот. «Я получил прекрасную и ценную награду. Даже если вам за 60, вы все равно можете получить актерскую награду, а не просто награду за достижения в жизни. Актерскую игру следует оценивать только по результатам работы, а не по популярности или другим условиям», — сказал он. «Эта награда не только для меня. Это признание всего актерского состава и съемочной группы».

Средняя стоимость праздничного стола на Соллаль 200 тысяч вон

В этом году стоимость праздничного стола для семьи из четырех человек на Новый год по лунному календарю Соллаль составит в среднем 203.349 вон (140 долларов). Об этом сообщила 15 января Корейская корпорация по торговле сельскохозяйственной и рыбной продукцией, проанализировав цены на 24 основных продукта для праздничного стола, которые продаются на 16 традиционных рынках и у 34 крупных дистрибьюторов. Если закупать продукты на традиционном рынке, их стоимость составит 188.239 вон (129 долларов), что на 2,6% больше, чем в прошлом году. Покупки в супермаркетах мелкооптовой торговли обойдутся в 218.446 вон (150 долларов), что на 5% дороже, чем год назад. По сравнению с прошлым годом, редька подорожала на 98%, корейская капуста на 56%, груши на 21,5%, а рыба горбыль на 23,4%. При этом цены на кабачки, хурму, каштаны и шпинат понизились по сравнению с прошлым годом (KBS World)

В 2024 году на Сахалине вдвое увеличилось финансирование на обеспеченность медучреждений высокотехнологичным оборудованием

В 2024 году в сфере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были успешно реализованы реформы, благодаря которым на 30% увеличилась пропускная способность поликлиник, сократились очереди к узким специалистам, стала доступнее высокотехнологичная помощь и еще больше людей начали получать льготные препараты по рецептам. О результатах работы регионального правительства в сфере медицины за 2024 год доложили губернатору Валерию Лимаренко.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добилась высоких показателей по ряду региональных программ в сфере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реализуемых в рамках нацпроекта «Демография». Одна из главных успешных инициатив, реализованных в островном регионе, - включение в маршрутизацию пациентов частных клиник. Запись в них стала доступна в рамках ОМС через лечащего врача или единый контактный центр 1-300. С ноября текущего года негосударственные медучреждения бесплатно приняли более 7 тысяч сахалинцев. Ежедневно клиники предоставляют 150 слотов для посещения врачей-специалистов и инструментальных методов диагностики. Это позволило радикально сократить листы ожидания к востребованным специалистам и на обследования. Эффективность продемонстрировал проект «Проводники здоровья»: благодаря социальным кураторам значительно выросло число людей, получивших льготные лекарства. Число отпущенных рецептов за 11 месяцев с начала года составило более 686 тысяч, что на 30% больше, чем в аналогичном периоде 2023 года. Решается и кадровый вопрос.

— Благодаря комплексным мерам в 2024 году в систему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ривлечено 1106 медицинских работников, из них 461 врач-специалист и 645 специалистов среднего медицинского персонала. В настоящее время укомплектованность медиками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ревышает среднероссийский уровень. В регионе создается филиал Тихоокеанского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медицинск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где готовят квалифицированные кадры, - рассказал министр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ладимир Кузнецов.

В 2024 году на Сахалине получили развитие медицинские службы, которые позволили повысить уровень диагностики, лечения и реабилитации пациентов. В областном онкологическом диспансере был открыт Центр ядерной медицины. Он оснащен передовой техникой — это МРТ, компьютерный томограф ПЭТ-КТ и аппарат ОФЭКТ. С появлением на островах высокотехнологичной аппаратуры улучшились процессы диагностики и лечения онкозаболеваний. В этом году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завершили строительство инновационного корпуса Консультативно-диагностического центра. Жители области могут получить помощь специалистов не только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медучреждения, но и современной клиники «Медскан», успешно интегрированной в медицинскую систему региона.

В текущем году вдвое увеличилось финансирование на обеспеченность медучреждений высокотехнологичным оборудованием. Областной реабилитационный центр получил 103 единицы нового оборудования, предназначенного для восстановления пациентов после тяжелых заболеваний, а также для реабилитации участников СВО. Областной клинической больнице предоставлена техника для витреоретинальной хирургии — операций на заднем участке глаза, которые помогают лечить катаракту, диабетическую ретинопатию и другие патологии. В городской больнице имени Анкудинова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был введен в эксплуатацию новый офтальмологический микроскоп экспертного класса. Также в горбольнице появился самый мощный на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компьютерный томограф, позволяющий делать до 256 срезов. Он обеспечивает диагностику экспертного уровня, позволяя выявлять заболевания на самых ранних стадиях. Поронайская центральная районная больница получила многофункциональный аппарат «Ру-Скан-60», который расширяет возможности диагностики в области акушерства, кардиологии, урологии и других направлений. В амбулатории Некрасовки Охинского района появились новые физиотерапевтические аппараты — «Милта» и «Полус-2М», которые особенно востребованы у пожилых пациентов.

Открылась новая поликлиника на 120 посещений в Дальнем. Еще 4 поликлиники будут сданы в следующем году — в Углегорске и Холмске и две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Продолжилась работа по ремонту и модернизации учреждений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в городской больнице имени Анкудинова был завершен капитальный ремонт терапевтического и кардиологического отделений. Также масштабные ремонтные работы были проведены в Центральной районной больнице Поронайска, Красногорской участковой больнице и Долинской центральной районной больнице. Качественной медицинской помощью были охвачены и села, где работают «Умные ФАПы». Они позволяют обследовать пациентов, передавать данные в медицинские учреждения и дистанционно получать консультации врачей. Таких аппаратных комплексов в области уже 23, в том числе и на Курильских островах. В 2024 году там было проведено более 15 тысяч исследований. В отдаленных районах также работают 46 автомобильных высокотехнологич-

ных медицинских комплексов — лечебных и диагностических. В этом году на их базе медицинскую помощь получили более 50 тысяч человек.

В текущем году оценка качества медуслуг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ыросла по сравнению с прошлым годом с 4,3 до 4,6, а оценка доступности — с 4,1 до 4,5 по пятибалльной шкале. Выявлять ее позволяет роботизированный обзвон пациентов, посетивших врачебный прием. Когда доктор получает низкий балл, каждый такой случай рассматривается на уровне руководителя медицинского учреждения.

— Мы поставили крайне амбициозную задачу — сделать медицину доступной и повысить качество медицинской помощи населению. Нам помогли наши люди, которые на каждой встрече давали обратную связь. Прислушиваясь к ним, мы провели колоссальную работу, фактически реформы в здравоохранении завершаются позитивно. Сахалин справляется с задачей по укомплектованию медучреждений медицинскими кадрами, мы идем к тому, чтобы в ноль закрывать листы ожидания к узким специалистам и оставить очереди в поликлиниках в прошлом. Мы наращиваем объемы поддержки людей, которые нуждаются в льготных препаратах, увеличиваем объемы их выдачи и закладываем в бюджет дополнительные средства. В будущем году мы продолжим делать все возможное, чтобы повысить качество жизни и сохранить здоровье сахалинцев и курильчан, - резюмировал губернатор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Губернатор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анонсировал развитие новых для Сахалина зимних видов спорта - фристайла и шорт-трека

В рамках встречи с министром спорта России и президентом национальной Олимпийской Комитета Михаилом Дегтяревым губернатор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анонсировал развитие новых для Сахалина зимних видов спорта. В островной регион планируют привлекать тренеров по виду конькобежного спорта — шорт-треку, а также дисциплину фристайла — могулу и акробатике.

Эти дисциплины вошли в соревновательную программу IV Российско-Китайских зимних молодежных игр, которые прошли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8-14 января. Ранее глава региона провел переговоры с руководителями национальных федераций по зимним видам спорта, которые стали гостями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спортивного события.

— В рамках встречи с министром спорта России я подробно рассказал о зонах развития нашего региона. Мы обсудили перспективы зимних видов спорта. Например, шорт-трека и фристайла у нас не было. Мы приняли решение, что эти виды спорта появятся на Сахалине. Я обратился с просьбой поддержать нас тренерским составом. Мы наблюдали за состязаниями в этих дисциплинах на Российско-китайских молодежных играх. Это было потрясающее шоу, к которому проявили большое внимание наши жители. Мы бы хотели собрать в регионе все дисциплины по зимним видам спорта, которые позволят не только сделать спорт массовым, но и дадут возможность сахалинцам и курильчанам наслаждаться спортивными зрелищами, - рассказал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В ходе рабочей встречи губернатор и министр спорта России посетили ряд значимых спортивных объектов в островной столице — лыже-биатлонный комплекс «Триумф», центр водных видов спорта «Волна» и Центр единоборств. Глава региона также рассказал о планах открытия летом нового спортивного объекта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 легкоатлетического манежа.

Сегодня в регионе развивается 91 вид спорта, аккредитовано 80 спортивных федераций.

— 156 наших спортсменов в составе сборных команд России, по итогам 2024 года у нас 39 мастеров спорта и 486 кандидатов в мастера. 30 всероссийских спортивных мероприятий мы проводим ежегодно. У нас есть серьезный задел для того, чтобы эти показатели росли. Есть хорошая база для занятий спортом. Сегодня мы с вами были на лыже-биатлонном комплексе «Триумф», в управлении этого объекта находится трамплинный комплекс «Высота», мужская и женская сборные России проводят сборы у нас. Есть учебно-тренировочный центр «Восток», недавно там прошли международные соревнования по тяжелой атлетике. Три рекорда России поставила наша сахалинка - Полина Павлович, - доложил министр спорт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Артем Подшивалов.

— Сахалин уже в лидерах в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м федеральном округе — сегодня больше 67% населения у вас занимается спортом. По обеспеченности спортивной инфраструктурой тоже хорошие показатели — почти 67%. Это очень хороший результат, и это показатель заботы губернатора и правительства области. За это вам большое спасибо, — обратился к губернатору министр спорта РФ Михаил Дегтярев. — Надо сказать, что кроме федеральной поддержки, а именно проекта «Спорт - норма жизни», в рамках которого построены крытые залы в селах Горнозаводск и Чехов, а также спорткомплекс в Ильинском, на Сахалине есть и областная программа развития. Мы видим большое количество спортивных объектов, на которые вы тратите средства, весьма успешно. В 2025-2027 годах мы с вами в рамках федерального проекта «Бизнес-спринт» построим еще 8 спортивных площадок и один модульный спортивный зал. Также хочу отметить вовлеченность жителей области в программу комплекса «Готов к труду и обороне»: 21 центр у вас открыт, это хорошие результаты. Я желаю вам успехов в развитии

спорта и вовлеченности в физкультуру.

Также Михаил Дегтярев обозначил задачи, поставленные президентом в спортивной сфере.

— Владимир Владимирович Путин ставит задачу по реабилитации воинов специальной военной операции, по привлечению их к спорту. Я знаю, что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в этом направлении прилагает серьезные усилия. Убежден, что наши ветераны спецоперации найдут себя в адаптивном спорте. И все условия для этого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есть. Прошу вас также на эту тему обратить внимание, держать ее на контроле. Также президент постоянно упоминает о необходимости снижения коммерциализации детского спорта. Необходимо создавать больше бесплатных возможностей для занятий детским спортом. Уверен, что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дети из семей с любым достатком найдут себя в спорте и получат возможности развития, - подчеркнул министр спорта России.

— Мы в этом направлении продолжим работу, - отметил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Филиал Тихоокеанского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медуниверситета на Сахалине начнет принимать студентов в этом году

В этом году филиал Тихоокеанского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медицинск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начнет работу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Сейчас идет процесс подготовки учебных аудиторий в одном из современных комплексов, расположенных в центре города. Также для студентов обустроят несколько лабораторий, оснащенных всем необходимым оборудованием. Об этом сообщили во время встречи Валерия Лимаренко с представителями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учреждения.

— Одна из основных задач - обеспечить жителей Сахалина и Курильских островов качественными медицинскими услугами. Это касается не только обновления оборудования и ремонта медицинских учреждений, но и кадрового обеспечения. Исторически медиков привлекали извне, но теперь появилась возможность готовить врачей-специалистов и медицинские кадры высшей квалификации (ординатура) на Сахалине. Это даст нашим детям шанс на успешную карьеру в престижной профессии. Студенты-медики и ординаторы смогут обучаться непосредственно в лечебных учреждениях на острове, - отметил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Все работы по подготовке лабораторий и документации планируют завершить в июне, чтобы во время приемной кампании абитуриенты могли подать документы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 Мы получили финальный договор на площадки - это необходимо для проведения лицензирования. Сейчас идет проверка Роспотребнадзора на пригодность проведения образовательн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Уже составлена дорожная карта комплекса мероприятий, и мы готовы начинать, - рассказал Валентин Шуматов, ректор ТГМУ.

На встрече подвели итоги 2024 года. Так, ТГМУ в стратегическом партнерстве с Центром беспилотных технологий Университета Иннополис запустил экспериментальный проект по доставке образцов крови с помощью беспилотных авиационных систем на Сахалине. Кроме того, в регионе на полную мощность заработал проект по полноэкзотному секвенированию ДНК новорожденных, реализуемый Тихоокеанским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м медицинским университетом совместно с Национальным медицинским исследовательским центром акушерства, гинекологии и перинатологии имени академика В. И. Кулакова. Базой для внедрения суперсовременной технологии стал Перинатальный центр Сахалинской клинической областной больницы.

— Этим проектом по праву можно гордиться. Медико-генетические исследования выполнены для 450 новорожденных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первые на территории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 это почти 10% от общего числа родившихся. Каждой семье осталась информация по 22 000 генам. Сахалинские врачи-генетики вместе с коллегами из Владивостока и Москвы предоставят подробные рекомендации врачам-педиатрам для дальнейшего наблюдения и ведения маленьких пациентов. Самый яркий пример - это спасение двух новорожденных, генетический анализ которых позволил сразу начать специальную терапию. И таких примеров на сегодняшний день уже 63. Сейчас мы выстраиваем систему маршрутизации таких пациентов, - подчеркнул Сергей Лебедев, проректор и руководитель программы развития ТГМУ.

Все эти достижения стали возможными благодаря поддержке со стороны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и Министерства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а также реализации программы стратегического академического лидерства «Приоритет 2030. Дальний Восток», участником которой является ТГМУ.

Напомним,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родолжается работа по формированию мощного медицинского кластера. Его частью станут ведущие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е и частные компании, а также реабилитационные центры, где представлено современное оборудование и работают профессионалы своего дела. Кроме того, обучение в филиале Тихоокеанского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медицинск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даст возможность вырастить своих специалистов в медицинской сфере.

(По материалам пресс-службы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2024년을 돌이켜보며

새고려신문에 게재된 사할린 한인 사회계의 크고 작은 사업·행사·사건

(2면의 계속)

5월 4일 - 5월 8일 한국에서 기념하는 어버이날을 앞두고 유즈노사할린스크시한인회(회장 림종환)에서 어르신들을 위한 어버이날 행사 진행. (본지 5월 10일 호)

5월 6일 -5월 5일 한국 어린이날 러시아 문화인류학 박물관의 사할린 지부가 추진하는 '사할린 에트노 강의실'기획 일환으로 진 울리아 박사의 '한국의 전통적 육아' 강연 열려. (본지 5월 10일 호)

5월 7일 -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취임 선서. (본지 5월 10일 호)

5월 10일 - 어버이날 맞아 사할린주 한인협회(회장 박순옥) 어르신들을 위한 기념행사 개최. (본지 5월 17일 호)

5월 12일 - '에트노스'아동예술학교 한민족문화예술과가 단오를 주제로 유즈노사할린스크시 '로지나'문화회관에서 발표회 공연. (본지 5월 17일 호)

5월 12일 - '사할린한인'유즈노사할린스크시한인회(회장 천영근)에서 '빅토리아'유즈노사할린스크 비영리 단체(회장 이민자) 회원들을 초대해 장애아 엄마들을 위해 김밥 요리교실을 열었음. (본지 5월 17일 호)

5월 28일 - 사할린 출신의 극동·시베리아 고려인단체연합회 회장이자 러시아민족회의 하바롭스크 지역 지부 협의회 제1부의장 백규성 씨, 하바롭스크 명예시민으로 선정. (본지 5월 31일 호)

6월 1일 - 75년 전에 조선로동자(현 새고려신문)의 창간호 발행. 이와 관련 수많은 축하문 받아. (본지 5월 31일 호)

6월 1일 - 유즈노사할린스크시에서 고 리태수 사할린 태권도 창설자 추모 극동태권도대회(ITF), 약 2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진행. (본지 6월 7일 호)

6월 5일 - 재외동포청은 인천광역시 송도에 있는 본청에서 출범 1주년을 기념하는 '재외동포와의 대화' 개최. (본지 6월 7일 호).

6월 6일-9일 - 4일간 '한국어 교사 양성'프로그램으로 사할린국립대에서 연수생 최종평가 진행. (본지 6월 14일 호)

6월 8일 - 유즈노사할린스크시 한인문화센터 앞마당에서 3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로푸흐-페스트(머위 축제)'가 열려 행사는 유즈노사할린스크시 문화관광센터와 사할린주 한인협회, 로지나 문화회관의 주최·주관 아래 유즈노사할린스크시 행정부의 지원으로 조성.(본지 6월 14일 호)

6월 9일 - 유즈노사할린스크시 공원에서 유즈노사할린스크시한인회(회장 림종환)가 주최하고 '사할린한인'유즈노사할린스크시 한인회(회장 천영근)의 협찬으로 제1회 <사할린 나물>축제가 열려. (본지 6월 14일 호)

6월 19일 -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연방 대통령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식 방문. (본지 6월 21일 호)

6월 16일-19일 - 2024 연변 민족식 씨름 경기 및 국제 초청경기가 4일간 중국 연길에서 펼쳐진 가운데 이에 사할린대표단이 참가. '영휘컵'연변 민족식 씨름 국제초청경기에서 사할린 선수 파닌 로만 준우승(2등) 거둬. (본지 6월 28일 호)

7월 4일-5일 - 이틀간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극동 미디어 삼미트 2.0(극동 대중매체 대표자 회담)대회'개최. 새고려신문사가 준비한 코너에는 새고려신문의 역사와 한국 전통문화 소개. (본지 7월 5일 호)

7월 13일 - 유즈노사할린스크시 사할린한인문화센터에서 사할린주한인협회(회장 박순옥)의 운영위원회의 열려 2/4분기 주한인협회의 사업보고, 하반기의 사업 계획 등 기타 문제를 논의. (본지 7월 19일 호)

7월 14일 - 어업인의 날 맞아 아나와 지역 해변에서 유즈노사할린스크시한인회(회장 림종환), 사할린한인연합회(회장 김홍지)와 '사할린한인'유즈노사할린스크시한인회(회장 천영근) - 3 단체가 야외회를 가짐. (본지 7월 19일 호)

7월 14일 - 아나와 해변에서 두 가지 행사로 어업인의 날 기념행사와 '한 가정에서'축제를 함께 진행. 어업인의 날 행사는 아나와 시행정부가, 제7회 '한 가정에서'축제는 사할린주한인협회(회장 박순옥)가 개최. (본지 7월 19일 호)

7월 21일 - 사할린주 한인협회·사할린주 한인청년회의 주최로 주정부의 지원 아래 제10회 사할린 한인 청소년 역사 캠프 열려 일주일간 진행. (본지 7월 26일 호)

7월 25일 - 재외동포청 제2대 청장에 이상덕 주 인도네시아 대사 임명. (본지 8월 2일 호)

7월 28일 - 마카로브에서 마카로브 시행정부와 사할린주한인협회의 주최로 제10회 '우리는 함께' 민족 간 축제 열려. (본지 8월 2일 호)

8월 초 - 재외동포청, 2024년 영주귀국 사할린 동포 법률지원 사업 시행. (본지 8월 9일호, 8월 16일 호)

8월 10일 - 사할린한인문화센터에서 어르신들이 모인 가운데 2024년 1세 사할린 한인 위한 '건강관리프로그램' 시작. 건강관리 프로그램은 사할린주한인협회와 사할린주청년한인회가 한국 보건복지부,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의 지원으로 실시. (본지 8월 16일 호)

8월 15일 - 20년 전, 2004년 8월 15일 '사할린'국영텔레라디오방송국의 '우리말 방송' 첫 TV방송이 시작. (본지 8월 16일 호)

8월 11~12일 - 광복절을 기념하여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유즈노사할린스크시한인회와 사할린주체스연맹의 주최로 사할린 한인 디아스포라 속기 체스대회 개최. (본지8월16일 호)

8월 17일 - 유즈노사할린스크가가린 공원 위치한 '코스모스'경기장에서 사할린 주한인협회(회장 박순옥) 주최로 광복 79주년 기념행사 진행. 행사에는 사할린주지사 왈레리 리마렌코 참가. (본지 8월 23일 호)

8월 17일 - 상트페테르부르크 사할린한인회 결산선거회의가 진행된 가운데 신임 회장으로 하 지나 씨가 선출. (본지 8월 30일 호)

8월 18일 - 유즈노사할린스크시한인회(회장 림종환)는 돌린스크구역 스타로돕스코예 마을 개인 해변가에서 단체 회원을 중심으로 광복 79주년 야외 기념행사 개최. (본지 8월 23일 호)

8월 24일 - 광복절 맞아 유즈노사할린스크시 '알레야'쇼팽센터 앞마당에서 '사할린한인' 유즈노사할린스크시한인회(회장 천영근)와 사할린한인연합회(회장 김홍지)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제3회 <라면>축제 펼쳐져. (본지 8월 30일 호)

8월 29일 - 인천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국내외 한인 여성 지도자 300여 명이 한자리에 모인 가운데 '제23회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킹'(KOWIN·코윈) 대회 열려. 사할린을 대표해 세계한인여성네트워크 러시아 지역 담당관 하이 올라 비롯해 총 4명 참석 (8월 30일 호)

9월 3일 - 일본 군국주의에 대한 승리의 날이자 제2차 세계대전 종전일을 맞아 사할린 출신으로 하바롭스크에 거주하는 사할린 동포 수십 명이 주하바롭스크 일본영사관 앞에서 피켓 시위를 진행. (본지 9월 6일 호)

9월 6일-8일 - 3일간 유즈노사할린스크 시두마(의회) 제7기 의원선거가 진행. 이번엔 선출된 유즈노사할린스크 시두마 의원 25명 중 3명이 한인동포(30-40대의 장 예브게니, 박웨니아민,정 루슬란 - 모두 압도적인 득표로 선출)다. (본지 9월 13일 호)

9월 13일 - 유즈노사할린스크시 세르게이 나드사진 시장이 '오스토브'회사 권수용 사장을 도시 명예 시민으로 발표. (본지 9월 20일 호)

9월 13일 - 유즈노사할린스크시가가린 호텔 컨퍼런스홀에서 50여 명이 모인 가운데 한국에서 패션디자이너이자 일러스트레이터로 활동 중인 사할린동포 출신 정 마리나와의 만남 진행. 행사는 새고려신문사가 주최한 '사할린의 만남: 삶, 창작, 마음에 대해'프로젝트 일환으로 조성됨. (본지 9월 20일 호)

9월 14일 - 유즈노사할린스크시 142주년, 추석을 맞아 유즈노사할린스크 휴식공원에서 사할린주한인협회가 참가자 200명을 초대한 가운데 김치축제 진행. (본지 9월 20일 호)

9월 16일 - 2024년 영주귀국 및 정착 사업 지원 대상으로 270명 선정 발표(본지 9월 20일 호)

9월 21일 - 추석 맞아 유즈노사할린스크시 한인회(회장 림종환)에서 노인정 어르신들을 모시고 즐

거운 행사 개최. (러시아어본문, 본지 9월 27일 호)

9월 25일 - 유즈노사할린스크시 "마야크"아트공간의 전시관에서 제2회 '사할린 아팔리나'미술대회의 발표·행사가 열린 가운데 조성용 화백이 '우수 풍경화'부문에서 우승. (본지 9월 27일 호)

10월 1일 - '2024년 세계한인회장대회'가 서울 잠실 롯데호텔 월드에서 막을 열어.(본지 10월 4일 호)

4월 4일 - 유즈노사할린스크시한인문화센터에서 13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장인들의 박람회'가 열렸다. 이 행사는 사할린주한인협회가 추진하는 '세대 간 연결, 전통의 이어줌' 기획의 일환으로 사할린주한인협회와 사할린국립대학교 어문·역사·동양학 대학 주관으로 개최. (본지 10월 11일 호)

10월 5일 - 세계 한인의 날 맞아 유즈노사할린스크시한인회(회장 림종환)의 주최로 사할린주 일반 과학도서관 강당에서 60여 명이 모인 가운데 '발전에 기여하는 사할린한인' 행사 진행. (본지 10월 11일 호)

10월 11일 - 러·한 기관의 대표자, 콩쿠르 참가자, 애독자, 후원자, 사할린한인단체 대표, 학생 등 총 약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유즈노사할린스크 '마야크(등대)'아트회관에서 새고려신문 창간 75주년 기념 글짓기, 사진 공모전 발표·시상식이 새고려신문사 주유즈노사할린스크한국영사출장소와 공동 주최로 진행. (본지 10월 18일 호)

10월 9일-15일 - 일주일간 한국을 방문한 사할린주한인회 박순옥 회장 재외동포청, 대한적십자사,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등을 찾아 사할린동포 관련 문제 논의. (본지 10월 25일 호)

10월 17일 - 사할린한인연합회 대표단이 재외동포청을 찾아 변철환 차장과 아주러시아동포과 정선호 과장과 만나 사할린한인연합회에서 준비한 호소문(본지 3면에 게재)을 전달하고 부모 생사관계 없이 사할린동포 2세들이 영주귀국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 개정 사항을 제안. (본지 10월 25일 호)

10월 18일-19일 - 양일간 대구에서 제9회 <사할린의 밤> 행사를 민족통일대구시청년협의회(회장 하태균)가 대구에서 영주귀국 한인 동포 어르신 150여 분을 초청한 가운데 개최. (본지 10월 25일 호)

10월 21일 - '세계 한복의 날'을 맞아(주)국악신문(대표이사 기미양)이 사할린 동포들에게 한복 30벌을 전달. (본지 11월 1일 호)

10월 26일 - 사할린한인연합회(회장 김홍지) 주최로 유즈노사할린스크 외곽에 있는 '루스코예 바로코' 연회장에서 70여 명이 모인 가운데 간담회 조성. 간담회의 주요 목적은 10월 중순에 한국 재외동포청을 다녀온 사할린한인연합회 대표단의 보고. (본지 11월 1일 호)

10월 27-28일 - 사할린한인문화센터 소속 '희망'무용단이 제12회 국제 자선 포용적 무용축제(인클쿠시브 무용 축제)에 출전(온라인)하

여 최우수상을 따내 모스크바의 구세주 그리스도의 대성당에서 열린 최종 행사들에서 공연. (본지 11월 1일호)

11월 8일 - 한국 안산 고흥마을 복지관 회의실에서 5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새고려신문 75주년 기념 '독자와의 만남' 행사 개최. (본지 11월 15일 호)

11월 16일 - 유즈노사할린스크시 무술센터에서 사할린 주지사상제1회 극동 무술축제가 개최되었다. 이 행사는 국가기획 '인구통계학의' 스포츠는 생활의 표준이다' 연방기획 일환으로 개최. 행사는 사할린주 스포츠부, 사할린주 선수 양성센터, 사할린주한인협회, 사할린주 동양무술학교가 주최. (본지 11월 22일 호)

1월 18일-22일 - 5일간 연해주 아르좁시 문화센터에서 고려인·한인 러시아로 이주 160주년 기념 '연해주 문화 교류 행사'가 펼쳐졌다. 행사는 (사)연해주동북아평화기금, <원동>고려인비즈니스클럽의 주최로 아르좁 시청, 고려인·한인 이주 16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추진위원회, (사)동북아평화연대 후원으로 진행. (본지 11월 22일 호)

11월 29일 - <사할린 K-pop 댄스 페스트>축제가 관객 6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유즈노사할린스크 '옥차브리'영화관에서 펼쳐져. 제11회 케이팝(K-pop) 축제로 사할린 국립대 어문·역사·동양학대학(학장 임엘비라)이 실시한 '아시아와의 대화'동계 국제학교 프로그램의 마무리를 밝게 장식했다. (본지 12월 6일 호)

12월 6일 - 사할린주향토박물관에서 4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사할린 한인' 상설 전시관이 개막. (본지 12월 13일 호)

12월 17일- KIN(지구촌동포연대)이 사할린 동포들에게 드리는 '세상에 하나뿐인 달력 2025'가 사할린에 도착했다고 밝혔다. 사할린현 지에는 벽걸이(1,050), 탁상용(375) 총 1,425부를 보내 현지 동포들에게 전달.(본지 12월 27일 호)

12월 18일 - 유즈노사할린스크시 사할린한인문화센터 대강당에서 재외동포청·대한적십자사·주유즈노사할린스크 한국영사출장소의 주최로 사할린동포 영주귀국·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설명회 두 차례 진행. 이를 위해 한국에서 재외동포청, 대한적십자사 대표단이 사할린 방문. (본지 12월 20일 호)

12월 21일 - 유즈노사할린스크 시티몰 쇼핑센터 3층 행사장에서 '사할린한인'유즈노사할린스크시한인회(회장 천영근)와 '한글'창작회(회장 배영희)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양력 동지 행사 개최. 프로그램에는 팔죽 시식, 한민족 문화를 소개하는 활동교실, 공예 활동교실 진행. (본지 12월 27일 호)

12월 22일 - 동짓날 맞아 사할린한인연합회(회장 김홍지)의 청년부 젊은이들이 유즈노사할린스크의 85세 이상의 어르신들을 찾아 뵈어 인사하며, 팔죽과 2종류의 떡, 쌀 등을 새해맞이 선물로 드렸다. (본지 12월 27일 호)

(본사 편집부)

이 모 저 모

(2면의 계속)

〈#우리 함께〉본부 자원봉사자들은 특수군사작전의 참전 장병들을 활발히 지원하고 있다.

돈바사 지역에서 전투가 시작되었을 때부터 사할린의 자원봉사자들은 참전 병사들에게 매일 필요한 물품들을 모은 수 천 개의 소포를 전선으로 보냈다. 2024년 자원봉사자들의 도움으로 특수군사작전 지역으로 보급한 인도적 지원 화물과 보낸 우편물의 총량은 145톤이 넘는다.

Волонтеры #МыВМЕСТЕ вручили чайные наборы врачам реабилитационного центра на Сахалине

Накануне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дня «спасибо», который отмечают по всему миру 11 января,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выразили особую благодарность за ежедневный нелегкий труд медицинским работникам областного реабилитационного центра. Врачей, которые ставят на ноги участников СВО после тяжелых травм, навели волонтеры сахалинского штаба #МыВМЕСТЕ. Добровольцы поблагодарили специалистов за работу и вручили им подарки — наборы чая и сладостей.

Волонтерский штаб #МыВМЕСТЕ активно поддерживает и участников СВО. С начала боевых действий в регионах Донбасса сахалинские добровольцы собрали и отправили на фронт тысячи посылок с вещами, которые нужны солдатам каждый день. По итогам 2024 года общий вес адресных отправок и гуманитарных грузов, доставленных в зону СВО с помощью волонтеров, превысил 145 тонн.

러시아 정부, 2025년 명절과 공휴일 승인

2025년 명절을 포함해 제작된 달력이 발표되었다. 정부의 법령에 따라 올해 5일 근무제 일정으로 일하는 근로자들은 118일의 공휴일과 247일의 근무일을 갖게 된다. 2024년 윤년

과 달리 근무일 수는 하루가 적다.

러시아 연방 노동법에 따라 공식적인 명절 휴무는 다음과 같다.

새해 연휴 - 1월 1일-6일, 1월8일, 성탄절 - 1월 7일, 조국 수호자의 날 - 2월 23일, 세계 여성의 날 -3월 8일, 봄과 노동의 날 - 5월1일, 승전 기념일 -5월 9일, 러시아의 날 - 6월 12일, 국가 단결의 날 11월 4일이다.

만약 명절 휴무일이 공휴일과 겹칠 경우 공휴일은 다음 평일로 대체된다. 러시아 연방 정부는 매해 근무일과 휴일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대체공휴일 일정을 승인하고 있다.

2025년 대체공휴일 전환으로 새해 연휴는 2024년12월 29일부터 2025년 1월 8일까지 11일간 지속됐다.

조국 수호자의 날(2월 22일-23일)과 국제 여성의 날(3월 8일-9일)에 맞추어 러시아 국민은 명절에 2일간 휴무한다.

5월 명절들은 두 부분으로 나뉘는데 봄과 노동절(5월 1일부터 4일까지), 승전 기념일(5월 8일부터 11일까지), 러시아의 날(6월 12일부터 15일까지)은 4일간 휴무이고, 국민 단결의 날(11월 2일부터 4일까지)은 3일간 휴무다.

2025년에 명절 전날은 3월 7일, 4월 30일, 6월 11일, 11월 1일이 된다. 이날들에 근무시간은 1시간 단축한다.

한 달에 근무일과 명절의 날수와 관계없이 근로자는 자신의 근로 임금 전액을 받아야 한다. 근로 임금은 다른 달보다 근무일이 적든 많은 변동없이 받게 된다.

공휴일과 명절에 일할 경우 최소 두 배 이상의 지표에 따라 고용주는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또는 직원과의 합의에 따라 다른 날로 옮겨 휴일을 이용할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Правительство России утвердило праздничные и выходные дни в 2025 году

Опубликован производственный календарь с праздничными днями на 2025 год. Согласно постановлению правительства, в этом году сотрудников, работающих

по пятидневному графику, ожидают 118 выходных и 247 рабочих дней. В отличие от високосного 2024 года, количество трудовых будней будет меньше на один день.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 Трудовым кодексом РФ официальными нерабочими праздничными днями являются: 1-6 января и 8 января — новогодние каникулы; 7 января — Рождество Христово; 23 февраля — День защитника Отечества; 8 марта — Международный женский день; 1 мая — Праздник Весны и Труда; 9 мая — День Победы; 12 июня — День России; 4 ноября — День народного единства.

Если нерабочий праздничный день совпадает с выходным, то выходной переносится на ближайший рабочий день. Правительство РФ ежегодно утверждает график переноса выходных дней, чтобы обеспечить баланс между рабочим временем и временем отдыха.

Благодаря этим переносам, в 2025 году новогодние каникулы продлились 11 дней — с 29 декабря 2024 года по 8 января 2025 года. По два дня россияне будут отдыхать в праздники, приуроченные к Дню защитника Отечества (22-23 февраля) и Международному женскому дню (8-9 марта).

Майские праздники будут разделены на две части: с 1 по 4 мая (к Празднику Весны и Труда) и с 8 по 11 мая (ко Дню Победы). Четырехдневные выходные ожидаются с 12 по 15 июня (ко Дню России), а трёхдневные — с 2 по 4 ноября (ко Дню народного единства).

В 2025 году предпраздничными днями станут 7 марта, 30 апреля, 11 июня и 1 ноября. Продолжительность рабочего дня в эти дни должна быть сокращена на один час.

Независимо от количества рабочих и праздничных дней в месяце, сотрудник должен получить свою заработную плату в полном объеме. Оплата труда остается неизменной, даже если количество рабочих дней меньше или больше, чем в других месяцах.

Работа в выходные и праздничные дни должна оплачиваться по тарифу не ниже двойной ставки. По согласованию с работником, можно предоставить возможность отгула в любой другой день.

(사할린주 언론기관 자료에서)

СТОМАТОЛОГИЧЕСКАЯ КЛИНИКА "РАДИКС"

Сделай свою улыбку красивой!!!



Тел.: 50-00-50; 43-31-31

Продолжается подписка на 2025 год

Подпишись на газету "Сэ коре синмун"! Поддержи национальную газету!

Свежие, эксклюзивные и достоверные новости и публикации из жизни корейского сообщества Сахалина, а также новости из Южной и Северной Кореи.

Стоимость подписки на 1 месяц — 115 руб.49 коп.

Индекс газеты: ПР575

Газету можно выписать во всех отделениях связ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оможем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ожертвования просим отправлять на расчетный счет: 40703810750340000024 в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м банке ОАО "Сбербанк России" г. Хабаровск.

Корр.счет: 30101810600000000608

БИК: 040813608

Получатель: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е синмун»

ИНН 6501011406, КПП 650101001.

Назначение платежа: пожертвование.

КУПИ ДИВАН - ПОЛУЧИ ПОДАРОК!

ул. Украинская, 58, тел.: 77-77-00

광고-광고

새고려 신문사는 독자 여러분이 신문에 실고자 하시는 광고나 생일 또는 여러 축하문을 접수합니다.

접수 방법은 전화: 43-59-80, 43-72-94. 이메일 : vikal31065@mail.ru, skr@sakhalin.ru 로 연락 바랍니다.

Редакция не несет ответственности за содержание объявлений и рекламных материалов. Рукописи не рецензируются и не возвращаются. Мнение редакции не всегда совпадает с мнением авторов.

광고의 내용에 대해서 신문사가 책임을 지지 않음.

<p>Издатель: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p> <p>Гл. редактор Бя В.И. с.з. (주필) 배 워토리아</p>	<p>Учредители газеты: автономная некоммерческая организация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p>	<p>Адрес издателя и редакции: 693020 г.Южно-Сахалинск, ул. Чехова, 37 Телефон/факс: 43-59-80, 43-72-94, 43-67-85 E-mail: skr@sakhalin.ru http://cafe.naver.com/sekoreasinmun.</p>	<p>Отпечатано в АО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ная типография», ул. Дзержинского, 34 Время подписания в печать: По графику - четверг 18-00 Фактически - четверг 22-00</p>	<p>Издаётся с 1 июня 1949 года. Выходит по пятницам 50 раз в год. Индекс ПР575 Тираж 1100 экз.</p>	<p>Газета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а Управлением Федеральной службы по надзору в сфере связи, информационных технологий и массовых коммуникаций п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видетельство о регистрации СМИ ПИ № ТУ65-096 от 22 сентября 2011 г.</p>
---	---	--	--	--	--